

목장교재 목자 지침서

<어떻게 살 것인가?>

3/10(주일) 설교 내용

전도서 12:13-14

1. 전도서 1:2 에는 '헛되다'는 말이 다섯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인생에도 전도자의 이런 고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허무한 때'를 경험했었다면,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다'는 반복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목원들에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헛되다'는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경험했다면 이야기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거나, 가정에서의 어려움, 자녀와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신앙적인 접근'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자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통해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경험을 통해 인생의 헛됨을 생각해 보지만, 정작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헛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가치관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2번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2번 질문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2. 오늘 설교에서,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고, 예수 믿고 난 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경험을 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점은 설교문을 통해 간단히 다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 믿고 난 후, 평범하게 지나갔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의미없이 지나갔던 하루 하루였는데.. 예수 믿고는, (물론 여전히 24시간 이라는 하루의 시간은 변함없이) 나에게 의미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경험, 혹은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예수 믿기 전에는 늦잠을 자고 놀러다니는 시간으로, '일요일'을 보냈다면, 예수 믿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로서 그 시간의 개념이 바뀌게 된 것도 "카이로스로서의 일요일(주일)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마 28:18-20-밋줄부분)을 함께 읽고, 나는 이 말씀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마태복음 28:18-20 을 함께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제시된 사명들(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즉,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한 이 구체적인 지침들 중에, 나는 어떤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성도라고는 하는데, 나는 구체적으로 그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는 것입니다.

- 가서: 나는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있는가?

- 가르치라: 나는 말씀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다짐도 함께 나누도록 해주십시오.